

Q 방법론을 활용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어려움에 대한 인식연구

서은정*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 어려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어떠한지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 어려움에 대한 인식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인식과 관련한 문헌고찰, 선행연구, 전국 맘 카페, 어린이집 면담일지 및 인터뷰 내용과 설문지 등을 통하여 Q표본으로 최종 34개의 진술문을 선정하였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P 표본 35명에게 Q 소팅을 실시하였으며, QUANL-PC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인식하는 양육 어려움은 다음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1유형은 '심리적 갈등형'으로 심리적으로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지 갈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2유형은 '모범적 훈육형'으로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 하는 바른 어머니로 자녀를 잘 훈육하고자 하는데서 양육의 어려움을 겪었다. 3유형은 '독립적 책임형'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에서 힘들어 했으며, 4유형은 '불안적 후회형'으로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양육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관점에서 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주관성의 구조에 따라 4개의 유형을 발견하고 각 유형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영유아기 어머니가 겪는 양육 어려움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영유아기 부모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나 교육 등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영유아기, 어머니, 양육, 양육 어려움

논문투고일: 2022. 01. 18. 최종심사일: 2022. 03.05. 게재확정일: 2022. 03. 15.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아동·청소년복지전공 박사수료

Corresponding Author : Seo Eun Jeo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00 Cheongpa-Ro 47-gil, Seoul, Republic of Korea. 04310. Email: skymam70416@hanmail.net

I. 서론

영유아기는 출생에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면서 첫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는 영유아기의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어머니의 역할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도 중요하다(Brazelton & Cramer, 1990). 부모 중 어머니는 영유아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관계를 형성하는 존재로서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 특히 영유아기는 모든 발달영역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일 뿐 아니라 이후 발달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이방실·김민정·정미라, 2016).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영유아의 정서지능의 수준을 높이고(최미선, 2021),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역량, 양육환경, 양육효능감은 영유아의 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 인지 발달, 신체 운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백윤희, 2016; 한은지, 2020)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영유아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이다.

최근 사회적인 이슈에 따른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더욱더 출산을 기피 하며 직장생활로 바쁜 어머니는 한 자녀 또는 두 자녀 출산에 따른 자녀 양육에서 기대와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어머니-자녀 관계에서 크고 작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김은주, 서영희, 2012). 자녀 양육에 기대와 관심이 증가함을 반영하듯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고 전문가의 육아법을 코칭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 방영되고 있으며, 육아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반영되어 시청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는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죄책감, 부모 개인 생활 제한 및 부족, 육체적 피로감 등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한다(홍예지·이순형, 2017). 이처럼 영유아어머니에게 자녀 양육은 가장 큰 스트레스임을 알 수 있다(김미예·박동영, 2009; 김혜자·이성희, 2011; 송연숙·김연주 2008; Crnic & Greenberg, 1990).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의 어려움은 스트레스에서 소진으로 이어지며 영유아인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어려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rnic와 Greenberg(1990)는 자녀에게 끊임없는 잔소리를 하는 것, 자녀들의 계속되는 칭얼거림, 끝도 없는 집안청소 등 양육과 관련된 잡다한 일들로 인해 피곤함을 느끼며, 특히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양육 기술의 부족으로 부모역할 만족감이 떨어지고, 양육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전우경(2001)은 어머니는 가사노동의 증가, 수면부족, 신체적 피로를 제시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권경숙(2008)은 영아를 양육하는 초보 어머니들의 양육 어려움으로 발달 과업으로 인한 어려움, 체력적인 어려움, 사회적 흐름에 맞는 양육법을 찾는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정은주, 이미선(2013)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내 자녀의 발달과 성장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적절한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황은민(2022)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양육과정에서 육체적인 피로의 증가와 함께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양육 방법의 무지와 대처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양육을 더 어렵게 느끼기도 하고 양육과정에서 남편과의 갈등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양육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어머니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지나치게 강압적인 양육방식을 취하거나 반응적인 행동을 보이지 못하여 자녀의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유빈·하은혜, 2010), 이와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태도는 영유아의 어린 시절에 생긴 두려움과 방어는 자동적인 습관과 신념 체계에 의해서 성인의 삶까지 전달되며 어린 시절의 환경이 건강하지 않을수록 공포도 크며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도 더 제한적이고 경직 되어진다(Riso & Hudson, 1990). 또한 어머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와 많은 시간을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영유아기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Benasich & Brooks-Gunn, 1996). 즉, 어머니는 사회적 행동의 모델이자 교사라 할 수 있으므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자녀의 정서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최숙경, 2004). 이렇듯 영유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갖게 되는 양육의 어려움에는 자녀 양육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양육에 대한 경험 부족, 정보 부족, 양육태도, 양육기술, 가치관의 차이 등 다양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양육의 어려움은 결국 양육 스트레스와 소진으로 이어진다(김종두·김선아·박성심, 2018)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외에도 어머니의 양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양육신념(이미영, 이현옥, 2014; 박은주, 2017; 조운진, 2017), 양육역량(이방실·김민정·정미라, 2016; 박성의·도미향, 2019), 양육태도(이원영, 1984; 문혁진, 2001; 김현자, 2007; 정은선, 2008), 양육환경(김그림, 2018; 최장용, 2019),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김현미, 2004; 이주옥, 2008; 도현심, 2014), 양육효능감(정미현, 2019), 양육소진(한수희, 2022)등과 같이 자녀 양육에 대한 연구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어려움과 그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적절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통합적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며 다양한 양육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체계의 심각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 대한 실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최학운,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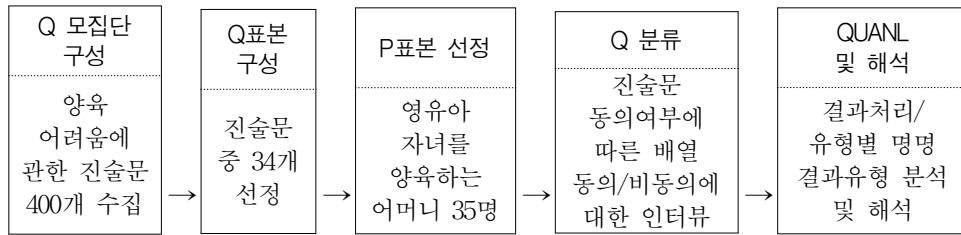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상황을 인식함으로써 어머니 스스로 양육에 대한 주호소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자녀 양육 어려움을 예측하고 진술문을 영유아기 자녀 양육을 하는 어머니들에게 직접 질문을 함으로써 예방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인 어려움의 형태를 미리 살펴봄으로써 양육 어려움에 주호소를 찾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기 자녀와 어머니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에 적합한 방법으로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고 특성을 분석하는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Q 방법을 활용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그 특성이 어떠한지 분석하는데 목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양육 어려움에 관한 주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국 맘카페, 전문 서적, 선행연구, 어린이집 면담일지, 인터뷰 등을 통해 양육 어려움에 대한 다양하고 의견 진술문을 추출할 수 있었다. 즉,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관점에서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경험의 형태를 분석하는 주관성의 구조에 따라 연구함으로써 각 유형을 발견하고, 유형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와 설명을 할 수 있는 Q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겪는 양육 어려움은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겪는 양육 어려움에 대한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

II.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어려움에 관한 주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절차

1. Q 표본 선정

1) Q 모집단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어려움에 대한 인식유형과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주관성 구조를 밝히는데 유용한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 방법론은 가설을 검증해서 이를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설을 발견하는 데 있다(김홍규, 2008). 또한 개인 내 존재하는 인식 탐색이 가능하기에 이를 통하여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어려움에 대한 경험에 관한 인식을 탐색해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Q 방법론은 본 연구 주제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Q 모집단 구성은 Q 표본인 진술문을 선정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Q 표본인 진술문은 응답자의 감정에 투사된 의견에 관한 것이므로(이은철, 김갑선, 2002), 본 연구의 양육 어려움에 관한 선행연구, 전국 맘카페, 전문 서적, 어린이집 면담일지, 인터뷰를 사용했다. 구체적인 양육 어려움에 관한 400개의 모집단 구성 내용으로는 전국 맘카페 모집단 130개, 선행연구 및 전문 서적 100개, 어린이집 면담일지 160개, 인터뷰 10개로 총 400개의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2) Q 표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인식하는 양육 어려움에 대한 Q 표본 선정을

위해서 400개의 초기 진술문을 가지고 1차로 아동복지 전공 박사 2명과 연구자가 Q 모집단 읽기를 반복하여 진술문 들 중 중복되거나 겹치는 내용의 진술문은 삭제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총 400문항에서 90문항으로 추출하였고, 2차로는 아동복지 전공 박사 2명과 박사과정 수료 1명에게 내용의 적합성을 받고 60문항으로 수정하였다. 3차로 Q 방법론 연구 경험이 있는 아동복지 전공 박사 6명과 박사과정 이상 전문가 8명의 내용타당도를 받아 최종 진술문을 점검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진술문은 34문항으로 완성하였다. 최종 Q 표본의 진술문은 <표 1>과 같이 34개로 선정하였다.

<표 1>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어려움 최종 진술문 (34문항)

진술문	
1	아이를 이해 시키는데 양육의 어려움을 느낀다.
2	짜증과 잦은 칭얼거림에 몹시 화가 나서 양육의 어려움을 느낀다.
3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양육 어려움이 크다.
4	아이를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지 몰라 양육 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5	아이를 기다려 주고 인내하는 것이 양육하면서 힘들게 느껴진다.
6	자녀 양육의 답답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한다.
7	아이에게 짜증을 낸 후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았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든다.
8	아이의 안전 문제로 불안한 마음이 자주 든다.
9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답답함을 느낀다.
10	매사에 우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아이를 볼 때 화가 난다.
11	부모한테 의존적이고 매달리려고만 해서 힘들다고 생각 한다.
12	아이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잔소리를 하게 된다.
13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할 때 난감하다.
14	잘못된 식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15	아이가 화가 난다고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16	아이가 기분이 나빠질 때 충동적인 행동을 해서 난감하다.
17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시킬 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 한다.
18	전문매체가 제공하는 양육정보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9	아이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울거나 보챌 때 걱정된다.
20	하지 말라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21	나는 아이를 과잉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22	부모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쉽게 토라지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다.
23	또래 아이보다 발달이 늦을 때 조급함을 느낀다.
24	물리적 환경은 아이의 발달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5	아이와 함께 하루 놀이 시간이 많이 부족 하다고 느낀다.
26	아이와 놀아줘야 하는 데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 어려움이 있다.
27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 같아 걱정이다.
28	육아에 대한 고민, 정보를 함께 나누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29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30	혼자 노는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 하다고 생각이 들 때 가 있다.
31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한 편이다.
32	또래에게 관심은 있으나 먼저 다가서지 못한다.
33	아무리 바빠도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34	다른 성향을 가진 형제, 자매 또는 또래와 다룰 때 힘이 든다고 생각한다.

3) Q카드 및 Q분포도 제작

본 연구는 34개의 진술문에 대하여 Q카드 및 Q분포도를 제작하고 2022년 1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총 12일간에 걸쳐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35명에게 Q 분류(Q-sort)를 실시하였다. Q 카드는 표본으로 선정된 34개의 진술문을 연구대상자가 읽기 쉽고, 분류하기 쉽도록 3x5cm 카드 형태로 만들었다. Q 표본의 분포도는 연구대상자가 선정된 진술문을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9점 척도 상에 분류하여 정규분포에 가장 가깝도록 강제 배열할 수 있도록 아래 [그림 2]와 같이 구성하였다.

가장 비동의 <————— 중립 —————> 가장 동의								
-4	-3	-2	-1	0	1	2	3	4
(1)								(3)
(2)								(4)

[그림 2] Q 표본의 분포도

4) P표본 선정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어려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개인정보가 무기명으로 사용되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어려움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P표본은 우선적으로 현재 영유아기 자녀를 둔 서울 경기도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이다.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회사원, 주부, 교육기관에서 근무 또는 양육의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공통적인 것은 주 양육자로 양육의 어려움이 있다고 의사를 밝힌 자들이다. 선정된 P표본 35명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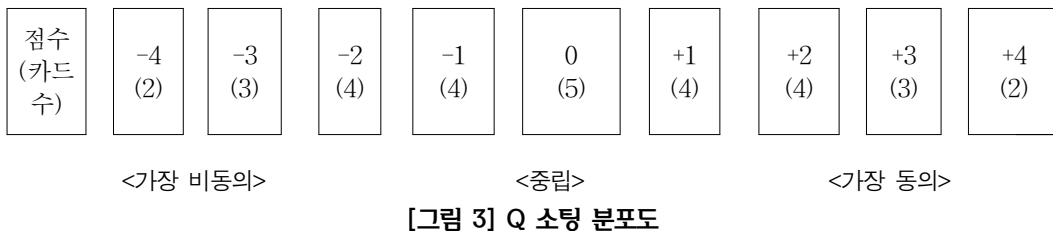
<표 2> 유형별 인구학적 특성

ID	이름	연령	직업	ID	이름	연령	직업
01	곽O연	37	주부	19	김O현	35	주부
02	김O진	39	주부	20	박O정	38	주부
03	정O영	35	보육교사	21	양O아	39	보육교사
04	장O하	38	주부	22	장O름	41	주부
05	함O은	36	주부	23	김O미	40	간호사
06	김O선	40	주부	24	유O겸	42	프리랜서
07	허O영	37	주부	25	윤O혜	41	주부
08	홍O희	42	주부	26	조O진	44	주부
09	최O은	29	보육교사	27	김O희	38	주부
10	이O숙	42	주부	28	마O정	40	회사원
11	김O아	30	보육교사	29	김O경	26	코이네이터
12	김O진	30	주부	30	송O나	36	주부
13	박O현	37	회사원	31	구O경	41	회사원
14	강O정	37	보육교사	32	주O나	40	주부
15	최O정	43	회사원	33	김O정	32	학원강사
16	강O겸	28	회사원	34	이O진	33	보육교사
17	배O정	39	보육교사	35	김O주	35	주부
18	박O은	33	회사원				

5) Q 분류

p표본으로 선정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34개의 각 진술문에 대한 자신의 동의 정도에 따라 [그림 3]과 같이 동의, 중립, 비동의 하는 것으로 나누게 하고, 이 가운데서 가장 동의하는 것에서부터 중립으로, 가장 비동의 하는 것에서부터 중립으로 진행하며

분류하도록 하였다. Q 표본으로 선정된 각각의 진술문이 적힌 카드를 응답자가 읽은 후 크게 가장 동의(+), 중립(0), 가장 비동의(-) 3개 그룹으로 분류한 다음 긍정 진술문 중에서 가장 긍정하는 것을 차례로 골라 바깥에서부터(+4) 안쪽(-4)으로 분류를 진행시켜 중립 부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였다. 부정 진술문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류하게 하였다, 또한 양극단에 (+4, -4) 놓여진 3개씩 진술문들에 대해서는 각각에 주관식 문항으로 응답자의 생각을 적도록 하였다.



2. 자료처리 및 분석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어려움을 점수화하기 위해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에 1 점을 주고, 가장 동의하는 것에 9점으로 강제분류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해 Q 카드가 분포도에 놓인 위치에 따라 점수화 하여 코딩을 하였다. 점수화된 자료는 QUANL PC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되었다. 요인분석은 주요인 분석(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회전방식은 베리맥스(Varimax)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인자가중치가 높은 1.0 이상인 사람이 그 요인의 전형성과 특성을 나타내는데 (김홍규, 2008) 가장 이상적인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켰으며(김홍규 · 오세정, 2011) 산출된 결과 중 전체 변량에 대한 요인들의 설명변량을 중심으로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 4개 유형을 확정하였다.

Q 요인은 비슷한 견해를 가진 응답자군을 의미하며, 연구 주제에 대하여 대상자 간의 유사한 관점을 보여주게 된다. 요인의 해석은 진술문을 기초로 하며 내용의 공통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문은 표준점수가(z-score) ± 1.00 이상인 항목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Q요인의 해석은 연구대상자의 감추어진 마음을 읽기 위해 모든 정보와 직관을 동원

하며 이러한 과정이 가설 생성적 특성을 지닌다. 즉, 유형의 해석은 진술문의 특정 분포에 대한 해답이나 설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추출된 요인은 각 유형의 진술문별 요인 점수를 바탕으로 토의를 통해 해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어려움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결과 총 4개 유형이 추출되었다. < 표 3 >에서 각 유형의 설명력은 각각 1유형이 20.88%, 2유형은 12.54%, 3유형이 5.08%, 4유형은 4.64%로 나타났다. 전체 누적 설명력은 43.14%로 이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설명변량을 나타냈다. 각 유형 중 1유형이 어머니의 양육어려움에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네 가지 유형의 총 변량, 즉 설명력이 43.14%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Q 방법론 연구에서는 총 변량이 보통 전체 변량의 약 35-40% 이상이 된다면 적합하다. 왜냐하면 Q방법론 연구의 목적이 각 유형의 설명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면 총 변량은 중요치 않기 때문이다 (Kline, P. 1993). 각 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자녀 양육 어려움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유사한 견해를 지닌 집단이다.

<표 3> 유형별 아이겐 값과 설명 변량

구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아이겐 값	7.3084	4.3887	1.7793	1.6224
변량(%)	.2088	.1254	.0508	.0464
누적변량(%)	.2088	.3342	.3850	.431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어려움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는 각 유형 간의 유사성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1유형과 2유형은 .091, 1유형과 3유형은 .179, 1유형과 4유형은 .493, 2유형과 3유형은 .395, 3유형과 4유형은 .344로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4> 각 유형 간 상관관계 계수

구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1유형	1.000	.091	.179	.493
2유형	-	1.000	.359	.219
3유형	-	-	1.000	.344
4유형	-	-	-	1.000

2. 양육 어려움에 관한 인식유형 특성

본 연구에서 밝혀진 4개의 양육의 어려움 유형은 그 특성에 따라 1유형은 심리적 갈등형, 2유형은 모범적 양육형, 3유형은 독립적 책임형, 4유형은 불안적 후회형으로 명명되었다. 연구대상자 35명 가운데 1유형 8명, 2유형 11명, 3유형은 7명, 4유형 9명으로 분류되었다. 관련 요인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해당 유형의 대표성을 띤 사람이고 그 유형의 특성을 가장 많이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5>는 각 유형별 인자가중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각 유형을 대표성을 띤 사람의 인터뷰 내용은 각 유형의 해석에서 언급하였다.

<표 5> 4가지 유형별 사람과 인자가중치

1유형 (N=8)		2유형 (N=11)	
ID	적재치	ID	적재치
02	.4352	01	.8835
04	.7830	03	1.3928
06	1.5384	05	1.1778
08	1.4801	13	.8066
11	1.2411	17	.7246
12	1.3590	21	1.6959
27	.3865	24	.7348
29	.3529	26	.5111
		28	1.0608
		30	1.3149
		31	.8431
3유형 (N=7)		4유형 (N=9)	
ID	적재치	ID	적재치
10	.5913	07	.3255
14	.6465	09	1.3146
16	1.5992	15	.6272
18	.4403	20	.7407
19	.6767	23	1.7552
22	.8746	25	.7512
33	.7730	32	.3879
		34	.2828
		35	.5653

영유아기 어머니의 대한 인식유형의 인자가중치를 살펴보면 유형1의 대표적인 사람은 적재치가 높은 P=06으로 1.5384, 유형2는 P=21이 1.6959, 유형3의 경우는 P=16이 1.5992이며, 유형4는 P=23으로 1.755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4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유형 - 심리적 갈등형

1유형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화와 같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갈등을 겪는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에서 1유형과 다른 유형들의 평균 표준점수 차이는 ± 1.00

이상인 진술문들을 나타내었다. 이들의 진술문들은 다른 유형들에서보다 1유형에 속한 사람들이 찬성하거나 반대를 한 항목들이다. 따라서 아래 진술문 등을 살펴보면 1유형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표 6> 1유형의 z-score +1.00 이상이나 -1.0 이하인 진술문

NO	진술문	표준점수
2.	짜증과 잦은 칭얼거림에 몹시 화가 나서 양육의 어려움을 느낀다.	1.48
4.	아이를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지 몰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1.44
1.	아이를 이해 시키는데 양육의 어려움을 느낀다.	1.36
5.	아이를 기다려 주고 인내하는 것이 양육하면서 힘들게 느껴진다.	1.35
24.	물리적 환경은 아이의 발달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28
34.	다른 성향을 가진 형제, 자매 또는 또래와 다룰 때 힘이 든다고 생각한다.	1.26
20.	하지 말라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1.13
26.	아이와 놀아줘야 하는데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 어려움이 있다.	1.00
18.	전문매체가 제공하는 양육정보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04
23.	또래 아이보다 발달이 늦을 때 조급함을 느낀다.	-1.14
11.	부모한테 의존적이고 매달리려고만 해서 힘들다고 생각한다.	-1.20
29.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1.28
8.	아이의 안전 문제로 불안한 마음이 자주 든다.	-1.38
6.	자녀 양육의 답답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한다.	-1.39
21.	나는 아이를 과잉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1.89

1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6>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Q2의 짜증과 잦은 칭얼거림에 몹시 화가 나서 양육의 어려움을 느낀다($z=1.48$)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Q4의 아이를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지 몰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z=1.44$), Q1의 아이를 이해시키는 데 양육의 어려움을 느낀다($z=1.36$), Q5의 ‘아이를 기다려 주고 인내하는 것이 양육하면서 힘들게 느껴진다($z=1.35$)’. Q24의 ‘물리적 환경은 아이의 발달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z=1.28$) 등의 순이었다.

반면, 낮은 점수를 부여한 진술문은 Q21의 ‘나는 아이를 과잉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z=-1.89$)이다. 다음으로 Q6 ‘자녀 양육의 답답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 힘들다고 생각한다’($z=-1.39$), Q8의 ‘아이의 안전 문제로 불안한 마음이 자주 든다’($z=-1.38$), 등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1유형을 대표하는 응답자는 아이의 관점에서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아이의 짜증과 행동에 대한 반응에 대한 양육의 갈등과 심리적인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꼭 해야 하는 규칙이나 생활 습관인데 아이에게 하자고 말하면, “싫어”라고 말하여 양육하는데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 잠자기 전에 양치질 하자고 하면 “싫어”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손 씻자고 하면 “싫어”라고 말하여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도 잘 듣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ID 06 어머니, 2022. 01 23)

1유형의 속하는 어머니들은 아이의 안전문제로 불안하기보다는 아이를 이해시키기 힘들어 하는 경향이 있다. 해야 할 일을 왜 하기 싫다고 짜증을 부리는지 모르겠고 인내하는 것이 힘들며 어머니로서 화가 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다. 즉, 심리적으로 갈등을 느끼면서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특징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유형에 속하는 어머니들은 ‘심리적 갈등 형’으로 명명하였다.

2) 2유형 - 모범적 훈육형

2유형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올바른 모범적인 양육을 추구하는 수준에서 훈육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유형이란 것을 알 수 있다. <표 7>에서 유형2와 다른 유형들의 평균 표준점수 차이는 ± 1.00 이상인 진술문들을 나타내었다. 이들의 진술문들은 다른 유형들에서보다 2유형에 속한 사람들이 찬성하거나 반대를 한 항목들이다. 따라서 아래 진술문 등을 살펴보면 2유형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표 7> 2유형의 z-score +1.00 이상이나 -1.0 이하인 진술문

NO	진술문	표준점수
15.	아이가 화가 난다고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1.89
33.	아무리 바빠도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80
7.	아이에게 짜증을 낸 후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았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든다.	1.36
12.	아이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잔소리를 하게 된다.	1.29
14.	잘못된 식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1.28
24.	물리적 환경은 아이의 발달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8
4.	아이를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지 몰라 양육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1.03
10.	매사에 우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아이를 볼 때 화가 난다.	-1.10
22.	부모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쉽게 토라지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1.10
5.	아이를 기다려 주고 인내하는 것이 양육하면서 힘들게 느껴진다.	-1.27
2.	짜증과 잦은 칭얼거림에 몹시 화가 나서 양육의 어려움을 느낀다.	-1.36
1.	아이를 이해 시키는데 양육의 어려움을 느낀다.	-1.53
3.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양육 어려움이 크다.	-1.58
6.	자녀 양육의 답답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한다.	-1.97

2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7>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Q15의 아이가 화가 난다고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z=1.89$)’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으며, Q33의 아무리 바빠도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z=1.80$)’, Q7의 아이에게 짜증을 낸 후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면 을 보았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든다. ($z=1.36$)’, Q12의 ‘아이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잔소리를 하게 된다($z=1.29$)’ Q14의 ‘잘못된 식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z=1.28$)’등 순으로 동의를 나타내었다.

반면 낮은 점수를 부여한 진술문은 Q6의 ‘자녀 양육의 답답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한다($z=-1.97$)’이다. 또한 Q3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양육 어려움이 크다 ($z=-1.58$)’, Q1의 ‘아이를 이해시키는 데 양육의 어려움을 느낀다($z=-1.53$)’,등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진술문에 높은 점수를 준 연구대상자들은 영유아기 자녀 양육에 있어 어머니가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양육 방법에 대한 양육 신념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대표되는 ID 21 어머니 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워킹맘으로서 퇴근하고 아이를 만나면 그 때부터는 아이와 보내는 시간에 집중하면서 아이

와의 놀이에 시간보다는 질적으로 함께 참여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커갈수록 같이 놀면 놀수록 더 긴 시간 같이 놀고 싶다고 아쉬워하는데 엄마는 개인시간을 갖고 싶어서 놀이를 그만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같이 놀다가 따로 쉬면서 개인 시간을 가져도 아이가 만족감을 표합니다.

(ID 21 어머니 2022. 2. 25)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아이가 성장했음을 알 수 있는 기준은 자신의 기분이나 상황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다. 말로 하지 못하고 몸으로, 폭력성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다. 반복적으로 잘못임을 인지시키고, 행동을 반복할 경우 훈육을 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ID 30 어머니. 2022. 1. 23)

이러한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2유형의 특징은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하려고 하며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하여 질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지 못 할 때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2유형은 어머니의 역할 수행에 따른 고충을 부부 또는 가족들과 서로 협력하며 소통하고 자녀 양육을 기대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따라서 2유형의 어머니들은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하는 바른 어머니로 자녀를 잘 훈육하고자 하는데서 양육의 어려움을 겪으므로 ‘모범적 훈육형’이라고 명명한다.

3) 3유형 - 독립적 책임형

3유형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양육책임을 지향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유형이란 것을 알 수 있다. <표 8>에서 3유형과 다른 유형들의 평균 표준점수 차이는 ± 1.00 이상인 진술문들을 나타내었다. 이들의 진술문들은 다른 유형들에서보다 3유형 속한 사람들이 찬성하거나 반대를 한 항목들이다. 따라서 아래 진술문 등을 살펴보면 3유형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표 8> 3유형의 +1.00 이상이나 -1.0 이하인 진술문

NO	진술문	표준점수
33.	아무리 바빠도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32
12	아이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잔소리를 하게 된다.	1.72
7.	아이에게 짜증을 낸 후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았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든다.	1.62
29.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1.04
5.	아이를 기다려 주고 인내하는 것이 양육하면서 힘들게 느껴진다.	-1.04
27.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 같아 걱정이다.	-1.09
20.	하지 말라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1.14
31.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한 편이다.	-1.17
21.	나는 아이를 과잉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1.19
30.	혼자 노는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	-1.20
19.	아이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울거나 보챌 때 걱정된다.	-1.21
1.	아이를 이해 시키는데 양육의 어려움을 느낀다.	-1.32
4.	아이를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지 몰라 양육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1.68

3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8>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Q33의 아무리 바빠도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z=2.32$)’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으며, Q12의 아이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잔소리를 하게 된다($z=1.72$)’, Q7의 아이에게 짜증을 낸 후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면 을 보았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든다. ($z=1.62$)’, 등 순으로 동의를 나타내었다.

반면, 가장 강한 부정적인 항목은 Q4의 ‘아이를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지 몰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z=-1.68$)’이다. 또한 Q1 아이를 이해시키는 데 양육의 어려움을 느낀다($z=-1.32$)’, Q19의 ‘아이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울거나 보챌 때 걱정된다($z=-1.21$)’,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술문에 높은 점수를 준 연구대상자들은 양육책임을 지향하고 있는 자신만의 양육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3번 유형을 대표하는 ID 16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아이는 넘어지거나 하면 스스로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조금 다쳐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고 하면서 씩씩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한다.

(ID 16 어머니. 2022. 2. 25)

그 외에도 3번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아이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기가 되었을 때 아이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 해주고 발달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도움을 주고 있고, 예를 들어 아이에게 설명을 하게 되면 아이가 잘 받아들이고 행동하기에 아이를 이해시키는 어려움은 없었다.

(ID 22 어머니 2022.1.17.)

3유형을 종합해 볼 때, 이 유형의 특징은 당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어머니로서 당연한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스스로가 어머니로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이 역시도 독립적으로 자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잘 해결 하려고 하는 의지와 아이의 상황과 관점에서 생각을 주로 한다는 면과 어머니 스스로 양육을 소신껏 하는 양육 태도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독립적 책임형’이라고 명명한다.

4) 4유형 - 불안적 후회형

4유형의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대해 주저하고 불안해하였으며, 미안한 마음과 후회하는 유형이란 것을 알 수 있다. <표 9>에서 4유형과 다른 유형들의 평균 표준점수 차이는 ± 1.00 이상인 진술문들을 나타내었다. 이들의 진술문들은 다른 유형들에서보다 4유형 속한 사람들이 찬성하거나 반대를 한 항목들이다. 따라서 아래 진술문 등을 살펴보면 유형4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표 9> 4유형의 +1.00 이상이나 -1.0이하인 진술문

NO	진술문	표준점수
7.	아이에게 짜증을 낸 후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았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든다.	2.34
4.	아이를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지 몰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1.51
8.	아이의 안전 문제로 불안한 마음이 자주 든다.	1.40
12.	아이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잔소리를 하게 된다.	1.32
26.	아이와 놀아줘야 하는데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 어려움이 있다.	1.18
34.	다른 성향을 가진 형제, 자매 또는 또래와 다룰 때 힘이 든다고 생각한다.	-1.11
30.	혼자 노는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	-1.18
19.	아이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울거나 보챌 때 걱정된다.	-1.31
22.	부모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쉽게 토라지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1.47
29.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1.68
6.	자녀 양육의 답답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한다.	-2.09

4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9>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Q7의 아이에게 짜증을 낸 후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았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든다($z=2.34$)’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Q4의 아이를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지 몰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느낀다($z=1.51$)’, Q8의 아이의 안전 문제로 불안한 마음이 자주 든다($z=1.40$)’, 등 순으로 동의를 나타내었다.

반면, 낮은 점수를 부여한 항목은 Q6의 ‘자녀 양육의 답답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한다($z=-2.09$)’이다. 또한 Q29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z=-1.68$)’, Q22의 ‘부모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쉽게 토라지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z=-1.47$)’,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진술문에 높은 점수를 준 연구대상자들은 안전 염려증을 가지고 있어 불안한 마음에 영유아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양육방식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후회를 진술하였다. 가장 대표되는 ID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생각만해도 눈물이 나는데요. 정말 저의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아이들을 많이 혼내고 울며 잠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 자는 모습보면서 엄마도 같이 울곤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다짐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왜 혼을 내서 내가 이렇게 속상할까 화가 날 때 15초 심호흡 하자 라고 다짐합니다.

(ID 24 어머니 2022.2.24.)

그 외에도 4번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 나는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에는 반드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가 신체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을 위험하다는 이유로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괴리감이 들어 훈육을 해야 할 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지 어렵다.

(ID 25 어머니. 2022.1.15.)

순간적인 감정으로 아이에게 짜증을 낸 후 돌아서면 그 때 아이의 감정이 이해가 되고 미안함을 느끼는데 주로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러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 반성하고 후회하며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스스로 다짐을 한다.

(ID 09 어머니. 2022.1.18.)

진술문을 살펴보았을 때 4유형의 어머니들은 영유아에 대한 사건 사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이에 영유아의 행동에 제한을 두는데 이러한 제한이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또 다양한 형태로 양육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육아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양육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에 대해 어머니가 스스로 인식하여 반성하고 후회하는 등 성찰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4유형은 ‘불안적 후회형’으로 명명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어려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인식유형은 4가지로 분류되었다. 1유형은 심리적 갈등형, 2유형은 모범적 훈육형, 3유형은 독립적 책임형, 4유형은 불안적 후회형으로

나타났다.

1유형의 동의 진술문에서는 ‘짜증과 잦은 칭얼거림에 몹시 화가 나서 양육의 어려움을 느낀다.’, ‘아이를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지 몰라 양육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아이를 이해시키는 데 양육의 어려움을 느낀다.’ 등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영유아기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갈등하고 있었다. 이들은 영유아들을 양육하는데 있어 심리적으로 화를 경험하고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다. 또한 가정에서 영유아와 양육의 중요함을 인식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는 유형이다. 이러한 영유아 어머니의 심리적인 갈등은 영유아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때문에(박지영, 2010; 이지현, 2006; 이채호·이찬숙, 2009; 최순자, 2002) 어머니의 양육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즉, 어머니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양육기술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한경님, 2012). 이러한 선행연구는 어머니의 양육기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자녀 양육의 답답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를 과잉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등의 1유형은 다른 어머니들이 느낄 수 있는 답답하고 힘든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계기가 된다면 자녀의 돌발적인 행동에 양육 방법을 모색하고 부모교육과 코칭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머니가 처해있는 상황과 여건 또는 신체적, 정신적 영향이 영유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Skovhol(2001)도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축적되면 피로감, 좌절감, 정신적소모감, 무력감, 등 신체적, 정신적 고갈상태가 되는 양육의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어머니가 양육의 어려움을 잘 조절하고 건강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어머니와 영유아 간의 갈등 상황이 위기가 아닌 발달에 도움을 주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김현주, 최혜림,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유형에 속하는 어머니들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지 갈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심리적 갈등 형’으로 명명하였다.

2유형의 긍정 진술문에는 ‘아이가 화가 난다고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바빠도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육 하는데 있어서 자녀가 소중하고 사랑스럽더라도 안되는 행동은 단호하고, 자녀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내서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머니는 자녀가 사회적 관계를 맺는 최초의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환경적 변인으로 보고되었다(공영숙, 2012; 문상희, 2011; 채경진, 유연옥, 2015)는 이 또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서 전문

적 양육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충분한 소양을 갖추어서 영유아 발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에 가장 부정 진술문을 살펴보면 1유형과 동일하게 ‘자녀 양육의 답답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형2는 문제행동을 간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중한 자녀를 위해 어머니의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녀를 위하여 질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신의 역할 수행에 따른 고충을 부부 또는 가족들과 서로 협력하며 소통하고 자녀 양육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직장생활에 바쁜 어머니는 자녀의 욕구를 만족 시켜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그릇된 태도 및 생활 전반에서의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며 때로는 부모의 동정 및 책임감으로 인해 과잉보호 현상이 초래되어 지나친 기대로 자녀의 정서를 불안정하게 하기도 한다(유영주, 1987)는 선행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2유형의 어머니들은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하는 바른 어머니로 자녀를 잘 훈육하고자 하는데서 양육의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이들을 ‘모범적 훈육형’이라고 명명하였다.

3유형의 긍정 진술문에서 보면 ‘아무리 바빠도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이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잔소리를 하게 된다.’는 3유형은 영유아기 발달에 대해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녀가 건강하고 잘 성장하기를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잘 해결 하려고 하는 의지와 아이의 상황과 관점에서 생각을 주로 한다는 면과 어머니 스스로 양육을 소신껏 하는 양육 태도를 볼 수 있다. 반면에 가장 비동의한 부정 진술문에서는 ‘아이를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지 몰라 양육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로 1유형과 다르게 가장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세롬 외(2015)의 연구에서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자녀 양육은 육아를 통하여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며, 이처럼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역할 수행 뿐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위해 어머니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형3은 어머니의 양육에서 어머니로서 아이와의 놀이시간을 확보하고 어머니가 아이를 책임지는 것을 강조하는 유형으로 이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어려움이 생기므로 “독립적 책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4유형의 긍정 진술문을 살펴보면 ‘아이에게 짜증을 낸 후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았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아이를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지 몰라 양육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1유형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즉, 앞에 유형과 같이 공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4유형은 어머니의 양육에 대해 중요하고 책임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어머니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이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어머니로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죄책감 등 양육의 여러 행동과 연관되어 자녀의 훈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안정신, 2020), 이와 같은 자녀의 양육 태도와 행동은 자녀의 전인적인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오창순·송미숙, 2004). 반면에 가장 부정 진술문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자녀 양육의 답답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 힘들다고 생각한다.’ 등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4유형은 가정에서도 당면하고 있는 양육의 어려움으로 양육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육아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양육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에 대해 어머니가 스스로 인식하여 반성하고 후회하는 등 성찰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4유형은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양육에 대해 고민하는 ‘불안적 후회형’으로 명명하였다.

이에 따라 각 유형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어머니들이 인식하고 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영유아에 대한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관점을 지니고 있으며 영유아에게 명확한 기준이 없이 모호한 태도로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유형은 1유형과 4유형이라 할 수 있다.

1유형은 가장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는 상태로 영유아에 대해 노력은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위와 같은 방법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코칭적 접근을 통해 욕구를 해소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들은 가정 안에서 영유아의 마음을 공감하며 아이의 긍정적 의도를 이해하는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아이도 성장하고 어머니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들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이나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이해하고 있고, 계기가 된다면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복지 지원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유형은 적극적으로 어머니로서 올바르게 아이를 지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아이를 잘 훈육해서 바른 아이로 양육하고자 한다. 따라서 올바르게 긍정적 훈육법에 대해서 부모교육 방법과 코칭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머니로서 소중한 자녀를 위해 명확한 기준을 지녀야 한다고 인식하는 유형으로 2유형과 3유형을 들 수 있다. 이 두 유형은 공통적으로 자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부모가 노력하고 변화하려는 유형이다. 3유형은 영유아에 대한 돌발적인 문제행동이 나타나면 바로 수정을 요구하며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4유형은 어머니가 스스로 인식하여 반성하고 후회하는 등 성찰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종합해 결론 내리자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인식유형을 통해 가정에서 영유아를 둔 어머니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주호소를 진술문으로 추출하여 Q표본으로 압축하였기 때문에 진술문의 활용도가 높은 것이라고 사료된다. 나아가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 어려움의 4개의 인식유형을 분류하고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영유아를 둔 어머니에 대한 양육 어려움을 찾아내고 해결점을 찾는 것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크게 자녀에 대한 심리적 갈등형, 모범적 양육형, 독립적 책임형, 불안적 후회형의 4개의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 어려움에 관한 인식의 주관성을 유목화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그러나 유형별로 차이가 어떠한 이유에서 나타났는지에 대한 원인과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Q 방법론에서 통계적 산출을 기반으로 하기에는 대상의 주관적 반응에 대한 각 유형을 산출하지만 산출하게 된 유형의 해석방법은 연구자가 주관적인 관점에서 반영한다. 이에 유형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원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영유아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관한 인식의 주관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밝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전업, 맞벌이 어머니의 양육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부모 중 아빠, 한부모, 입양부모, 조부모 등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식을 조사하여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보고 그것에 맞는 양육대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에서 영유아 어머니를 중심으로 자녀 양육 어려움에 관한 인식연구를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추후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양육에 대한 코칭프로그램, 부모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권경숙(2008). 영아를 양육하는 초보 어머니들의 양육 특성과 어려움에 관한 질적 연구. *열린유아교육 연구*, 13(1), 229-255.
- 공영숙·임지영(2012).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 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인지적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2(2), 351-375.
- 김그림(2018).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불규칙 근무 취업모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요구에 관한 연구. 중 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김미예·박동영(2009).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우울 및 언어적 학대. *한국아동간호학회지*, 15(4), 375-382.
- 김은주·서영희(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육아경험연구, 육아지원연구, 7(1), 93-114.
- 김정희·정은주(2012).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 비교를 통한 가족지원전략. *유아특수교육연구*, 12(1), 165-190.
- 김종두·오가영(2018).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소진에 미치는영향-가정어린이집원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시아문화학술원*, 9(3),911-922.
- 김홍규(2008). Q 방법론-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홍규·오세정(2011). SNS 이용자들의 심리적 유형: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향해. *주관성 연구*, (22), 161-177.
- 김현미(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 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자·이성희(2011). 유치원에서 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적용효과.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2(2), 277-295.
- 김현자(2007). PET 와 현실요법을 접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의사소통기술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4(2), 95-121.
- 도현심(2013). 아동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아동학회지*, 34(3), 151-177.
- 문상희(201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기질 및 문제행동의 경로 모형분석. 동아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혁준(2001).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05-219.
- 박세롬·이강식·홍경선·서병권·강민조·조춘만·송하승·김승민·방보람·이정민·한우석·장윤희·이범현·이승 훈·박대근·이태리·박준·백수진·오민준(2015). [국토연구원 단신]‘공유도시 포럼 전문가 특강’개 최 외. 국토, 118-127.
- 박성의·도미향(201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강화 부모코칭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부모교육연구*, 16(1), 45-67.
- 박은주(2017).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놀이신념이 영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영(2010).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생존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사례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6, 203-231.
- 백윤희(2016). 영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성격·양육태도에 따른 영유아 언어발달 특성. 용인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연숙·김영주(2008).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81-203.
- 안정신(2020).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자비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덕성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창순·송미숙(2004).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7, 135-161.
- 유영주(1987). *신가족 관계학*. 서울: 법문사.
- 이미영(2015).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성격 및 양육신념이 어머니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0(1), 169-188.
- 이방실·김민정, 정미라(2016). Q 방법론을 활용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 유형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20(1), 265-288.
- 이원영(1984).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유아교육연구*, 5, 101-140.
- 이은철·김갑선(2002). 사서직의 직업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25-47.
- 이종각(2004). *새로운 교육사회학총론*. 서울: 동문사.
- 이지현(2006). 동작 동시성 분석(SMP)과 동작 범위 측정(MRS) 분석을 통한 무용/동작치료 요인 비교. *한국무용기록학회지*, 11, 99-116.
- 이재호·이찬숙(2009). 유아 리더십과 사회적 능력, 기질 및 어머니 양육태도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4), 289-303.
- 이주옥(2008). 영,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비교. *영유아교육연구*, 11, 41-61.
- 임황룡(2010). 듀이의 흥미 개념의 교육적 의미.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우경(2001). 초산부의 어머니 역할 이미지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6(1), 147-171.
- 정미현(2019). 양육효능감증진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발. *부모교육연구*, 16(2), 19-36.
- 정은선(2008).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과 완벽주의의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은주·이미선(2013). 영유아 자녀를 둔 양육 어려움과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부부 의사소통과 부모역할 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8(4), 485-510.
- 조윤진(2017).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부모역할신념과 어머니 문지기역할, 부부 공동양육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경진·유연옥(2015). 유아의 활동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7(1), 19-34.
- 최미선(2021).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능력과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 칼빈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순자(2002). [여성과학자 컬럼] 두드리면 문은 반드시 열릴 것이요.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13(4), 479-480.
- 최창용(2019). 영유아기 양육환경이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서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학운(2019).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 동향 : 학위논문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수희(2022).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기반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양육소진 척도개발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경님(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한국영유아보육학*, 73, 171-190.
- 한은지(2020).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예지·이순형(2016).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 5, 218-219.
- 황은민(2022). 질적 메타분석을 통한 영유아기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enasich, A. A., & Brooks-Gunn, J. (1996). Maternal attitudes and knowledge of child-rearing: Associations with family and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67(3), 1186-120
- Brazelton, T. B., & Cramer, B. G. (1990). *The earliest relationship*. New York: Addison-Wesley.
- Crnicek,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Conger, R. D., Ge, X., Elder Jr, G. H., Lorenz, F. O., & Simons, R. L.
- Kline, P. (1993). *The handbook of psychological testing*. LD&NY: Routledge.
- Riso, D. R. & Hudson, R. (1990). *Understanding the Enneagram*. 구태원, 도홍찬 공역 (2010). 에니어그램의 이해 서울: 드림넷미디어.
- Skovholt, T. M. (2001). *The resilient practitioner*. MA: Allyn & Bacon.

Abstract

The Perception of Difficulties in Raising Mothers with Infant and Childhood Children using Q Methodology

Seo, Eun Jeong*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d classify the types of parenting difficulties by mothers of infants and toddlers and use them as basic data to provide policy support and education for parents of infants and toddlers. The Q method was used to classify and examine the types of perceptions of mothers with infants and toddlers about parenting difficulties. For the Q sample, the final 34 statements were sele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s, previous studies, national mom cafes, daycare center interview diaries, interview contents, and questionnaires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mothers with infants and toddlers.

Therefore, in this study, 35 parent P samples with infants and toddlers and 34 statements were sampled and Q-sorting was conduct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QUANL-PC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ere four types of perception of mothers with infants and toddlers: psychological conflict type, exemplary parenting type, independent responsibility type, and anxiety regret type. From the perspective of mothers raising infants, Q methodology was used to discover types formed according to the subjectivity structure that experiences difficulties in parenting and to understand and explain each type.

Key Words : Infants, mothers, parenting, parenting difficulties

* A child in the Department of Child Welfare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octorate in Youth Welfare Major in Youth Welfare